



孝74

호도에 관한 훈화

반중 조홍감이

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
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
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
다.

지은이 : 박인로(朴仁老, 1561-1642)
호는 노계. 그의 작품은 대개 고사(故事)를 많이 인용하
고 한문을 많이 쓰는 흠이 없지 않으나, 송강 정철, 고산
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3대작가로 손꼽히고 있다. <오류
가>를 지었다.

말뜻 :
반중(盤中) - 소반 위. 소반에 담은.
조홍감(早紅柿) - 일찍 익은감. '조홍시'라 해야 옳은 듯함.
보이나다 - 보이는구나!
유자(柚子) - 추운 지방에 자라는 귤(橘)의 한 가지.
반길 이 - 반가워할 사람. 즉, 지은이의 어머니를 가리킴.
글로 - 그것을. 그것으로. 그런 까닭에

감상 : 육적회굴(陸績懷橘)의 고사성어(故事成語)
- 옛날 중국 오나라의 육적이, 6세 때에 원술의 집에서
접대로 내놓은 유자굴 세 개를 슬그머니 품안에 숨겨 나
오다가 발각이 되었다. 그 까닭을 물었더니, 어머니에게
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여, 그 지극한
효성이 모두를 감동시켰다.
- 이 시조(時調)는 한음 이덕형이 접대로 내놓은 감을 보
고,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라 한다.

- 보통 조홍시가(早紅柿歌)라 불린다.
- "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, 자
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가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."
(樹欲靜而風不止, 子欲養而親不待)라는 옛글귀를 연상케
하는 시조로,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읽
는 이의 마음을 숙연케하며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.



2020년12월 후원해주신분들

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◆개인후원 (12.1-12.30)	○ 이○숙 ○ 김○숙 ○ 정○원 ○ 이○정 ○ 송○범 ○ 김○경	○ 한○숙 ○ 한○순 ○ 송파동교회 ○ 홍○섭 ○ 김○식 ○ 배○숙	◆물품후원 ○푸드뱅크	◆자원봉사	◆방문가족	자원봉사 활동중지	방역수칙 잠정	면회 중단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-----

후원안내*** 여러분의 후원이 은혜의동산에 귀중한 기금이 될 것이며, 의미있고 가치있는 기회가 됩니다.

- ◆ 재정후원
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
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쓰여 집니다.
 - ◆ 물품후원
어르신들의 식사와 간식, 기저귀, 비누, 샴푸, 바디워셔, 생필품 등 어르
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다.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
희에게 보내주시면 어르신들께 유용한 용품이 될 수 있도록 감사히 쓰
겠습니다. 예)기저귀 후원, 세제후원 등
 - ◆ 봉사후원
여러분들의 봉사후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과 같은 환경
에서 지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이 됩니다.
(청소봉사, 목욕봉사, 이미용봉사, 생신잔치 봉사, 프로그램 봉사, 시설보수 등)
- ※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며, 은혜의동산 소식지
를 보내드리고 은혜의동산 각종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
VMS인증기관으로 봉사실적이 적립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
다. 후원시 은혜의동산으로 문의해 주세요

후원금 신청서

이 름			
주 소			
전화번호			
본 인 계좌번호	은행	번호	
후원종류	●천사후원: 매월 1,000원 () 5,000원() ●일반후원: 매월 10,000원 () 20,000원() 40,000원() ●특별후원:일시불(원) ●특별후원: 매월 (원) ●토지건물매입지정후원 (원)		
후원방법	입금계좌: 농협 301-0035-2772-81(예금주:은혜의동산) ●직접, 자동이체, 무통장입금 ●CMS이체		

노인의효복지시설

은혜의동산

소식지(월간)

88호

2021년

12월호

노인이 행복한 따뜻한 세상

소식지(월간) 88호

- 발행일: 2021년 12월 30일
- 발행지: 은혜의동산
- 발행인: 조 한 수
- 편집인: 김 동 식

은혜의동산

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11번길 185-173
대표전화 (031)637-0118, 팩스 637-2276
홈페이지: WWW.은혜의동산.kr
네이버, 다음 에서 은혜의동산을 치세요

※본 소식지는 직원, 보호자, 봉사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.



은혜의동산 소식

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

코로나19 방역수칙-면회객은 모두 접종완료자(부스터샷)
에 한해 면회 허용되며, 사전예약, 발열여부 확인, 면회
객 명부 작성해야 하며 음식/음료 섭취는 불가합니다.
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
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족도 설문조사 협조부탁 드립니다

2021년도 만족도조사가 실시되고있습니다. 소식지와 함께
보내드린 설문지를 받으시고 표시한후(팩스 031-637-2
276, 카톡(복지사) 보내주시면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반
영하겠습니다.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영수증 송부

연말정산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동봉합니다. 국
세청에 자동신고되어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시청 지도점검

시청 지도점검이 12월 7일 있었습니다. 전반적인 시설을
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였습니다. 특별한 지적 없이 잘 마
쳤습니다

신고의무자 교육

복지시설 근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장애인학대신고
의무자 교육이 12월 7일 실시 되었습니다.

월별 프로그램 일정

◎ 1월 중요 일정:

- 2일: 급여계획 6일: 사회복무요원 교육
- 10일: 교육(윤리규정,윤리,노인학대예방) 26일: 생신잔치
- 매주 수,목,금(2:30): 놀이, 노래, 창작교실,
- 매주 월요일: 여가프로그램(민요,웃음치료, 얼굴맛사지)
- 매주 토요일: 학생자원봉사(말벗, 청소봉사)-잠정중단

은혜의동산 갤러리



△성탄절 산타잔치



△성탄이브 공연



△그림그리기



백세수업

홍합탕 한 그릇



지난 2021년 12월 12일,
한 70대 노인이 친구의 부탁이라며 노란 봉투를
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에 전달했습니다.
봉투 안에는 빼곡하게 적은 편지와 2천 달러 수표
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.

뉴욕에 있는 70대 노인이 이 편지를 보낸 사연은
1970년대 어느 겨울밤, 서울 서대문구 신촌시장
뒷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.

강원도 농촌에서 서울 신촌으로 상경해
어렵게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던
편지의 주인공.

그는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
허기진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
그러던 중 신촌시장 뒷골목에서 리어카를 세우고
홍합탕을 파는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.

뜨끈한 홍합탕을 보니 더 배가 고파졌지만
그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.
한참을 머뭇거리며 고민하던 그는 아주머니에게
다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.

"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?
돈은 내일 드리겠습니다."

그러자 아주머니가 선뜻 따뜻한 홍합탕
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.
하지만 당시 사정이 좋지 않던 그는
끝내 돈을 갖다 드리지 못했고, 군 복무를 마친 후
미국 이민 길에 오르게 됩니다.

그렇게 마음의 빚을 진 채 70세가 된 그는
감사의 마음과 속죄의 마음을 담아 어려운
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 주었으면
 좋겠다고
돈과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.



따뜻한 하루는 오늘도 소망합니다.
작은 민들레 흩씨가 퍼져서 민들레 밭을 이루듯
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곳곳에 퍼져서
어제보다 오늘이, 오늘보다 내일이
더 행복하고 따뜻해질 수 있기를
간절히, 소망합니다.

오늘의 명언

은인은 선행을 감추고,
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.
- 키론 -

자원봉사
모집

◀ 자원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합니다. ▶

여러분들의 후원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
한 환경조성에 큰 힘이 됩니다.(일부는 코로나이후)

청소봉사, 목욕봉사, 프로그램지원봉사, 생신잔치
봉사, 시설보수 등

*개인과 단체 *VMS 인증기관으로 봉사실적이 적립됩니다.

퀴즈나라
(제1회)

※본 소식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퀴즈를 맞추시는
분중 2명을 추천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.

문제1. 우리 요양원이 있는 이천시는 전체인구가
2021년 현재 몇 명인가요?

문제2.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행동
은 노인학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?

ex) 퀴즈나라 정답 1회-○, ○
카톡으로 1월중으로 보내주세요(010-5233-2785)30일추천



신앙칼럼

인도하시는 하나님

- 신명기 1:19-33 -

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한 환경과 어려운
환경으로 병행하여 인도하셨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
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60km를 행진한 후 하나
님은 고난도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. 그날 가뭄 주어
진 땅인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
하십니다(신 1:21). 지친 백성에게 두려움, 불평, 원망, 미움,
적대감은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자
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울리는
표현입니다. 여기서 하나님은 소망
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.

첫째,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
십니다(신 1:30상). 우리는 내년에
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. 그
러나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. 앞길
을 이미 걸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
없습니다. 하나님은 광야에 내던져
진 백성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
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
니다.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기
만 하라!(시 37:5)

둘째,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
워주십니다(신 1:30하). 싸워줄 사람
이 있으면 든든합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는 싸움에 능하신 하
나님이 계십니다. 이 백성에게 싸울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.
홍해, 목마름, 쓴 물, 더위, 추위, 굶주림.... 한시도 조용할 날
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. 하
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고

하나님께 맡기십시오. 하나님은 내년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
과 싸워 주실 것입니다.

셋째,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(신
1:31). 하나님은 젖먹는 아이를 품에 안 듯이 우리를 품에 안
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하나님이 나
를 안아주셨고 안아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.

넷째,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곳과 정착할 곳을 찾아 주시는
분입니다(신 1:33). 제가 목회하면서 주택문제로 길바닥에 나
앉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
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.
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35
년 동안 주택문제로 길바
닥에 나앉은 성도는 없었
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
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
서 머물러야 할지를 예비
하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이
십니다.

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
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
첫째, 하나님께 순종하기로
결심해야 합니다(렘
10:23). 둘째, 미래를 두려
워하거나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(신 1:21). 셋째, 하나
님이 인도하시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(신 1:26, 27). 끝
으로, 어디로 갈지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(신
1:28). “아이, 속상해! 죽겠네!”라고 말하면 그 말에 사로잡히
게 됩니다. 믿음과 감사의 말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합니다.



후원금

2021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

후원자별(집계) 입금현황

[2021.01.01 ~ 2021.12.31]				
NO.	후원자번호	후원자명	입금회수	입금액
1	2012M00022	정*원	9	1,347,620
2	2015M00026	송*동교회	12	720,000
3	2021M00001	정*희	1	500,000
4	2020M00004	한*숙	8	450,000
5	2020M00005	한*순	10	390,000
6	2015M00016	이*경	12	240,000
7	2016M00022	김*경	8	240,000
8	2015M00003	이*숙	9	180,000
9	2015M00025	한*화	7	140,000
10	2015M00002	홍*진	3	120,000
11	2015M00005	김*식	3	100,000
12	2015M00009	김*숙	7	70,000